

중국 투자가 심층면담 조사 보고서

1. 조사 목적

- (1) 대중국 투자유치업무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실태 파악
 - 잠재투자가 및 기존투자자의 투자 준비단계 및 투자과정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Invest Korea 대중국 투자유치업무 개선방안 도출 → 대중국 투자유치 로드 맵 반영
 - 유관기관의 투자유치 업무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Invest Korea-유관기관 상호보완적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위한 개선방안 도출 → 대중국 투자유치 로드 맵 반영
- (2) 대중국 투자유치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한 정보수집
 - 중국기업의 해외투자 절차 및 정부 지원제도 파악
 - 중국 국부펀드의 대한 직접투자 가능성 탐색

2. 조사 방법

- (1) 면담대상 선정
 - Kotra 중국 상하이 및 베이징무역관 통하여 사전에 면담 응답여부 확인, 상하이 및 베이징 소재 잠재투자기업 2개사, 기존 투자기업 2개사 선정

< 면담기업 개요 >

구분	모기업 소재지	규 모	투자 분야	비 고
A	중국 상하이	중국 국내시장 매출 Top 3	태양광 발전	잠재 투자
B	중국 상하이	중국 국내시장 매출 1억위안	광통신 부품	기존 투자
C	중국 베이징	중국 국내시장 매출 Top 3	온라인 게임	잠재 투자
D	중국 베이징	미국 다국적기업 아시아본부	온라인 마케팅조사	기존 투자

- 유관기관은 상하이 소재 국내 지자체 대표처 가운데 1개소 선정
 - 중국 국부펀드는 中國投資有限責任公司(China Investment Corporation) 1개소 선정
 - 중국기업의 해외투자 절차 및 지원제도는 중국 商務部 投資促進事務局 (China Investment Promotion Agency) 면담 통하여 파악
- (2) 면담방법
 - 대상 투자기업 및 기관을 방문하여 담당자 직접 대면 면담
 - (3) 면담기간
 - 2008년 6월 2-5일

(4) 비고

- 조사 표본수의 한계로 인해 이번 심층면담을 통해 파악된 Key Findings 내용을 중국 투자가의 대한투자 과정 전반에 걸친 통상적 애로사항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가의 경험에 입각한 실제 사실이라는 점은 투자 유치업무 개선내용에 반영될 정성적 조사 데이터로서 의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향후 다양한 지역과 업종의 기업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주기적이고 조직적 실태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투자유치업무를 개선하는 한편 투자가에 대한 맞춤형 유치서비스 제공 노력 강화 필요함.

3. 조사 결과

(1) 투자유치 업무 개선 요망분야

① Invest Korea PM 신속정확한 한국 국내시장 정보제공 강화 필요

- Key Findings: 중국 투자가 대부분 해외투자 경험부족에 따른 리스크 회피를 위해 현지 파트너를 통한 합작투자 형태 진출 선호. 또한 중국정부 내부지침에 따라 중국기업의 해외 투자자금 대출 및 투자보험도 합작투자건에 우선적으로 제공됨. 이에따라 중국기업은 투자 대상국 시장정보를 일차적으로 투자 파트너를 통해 입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Invest Korea 같은 중립적이고 공신력 있는 기관 접촉하여 입수정보 사실여부를 확인코자 함.
- 사례 (A기업): 한국 국내 태양광발전 시장에 대한 정보를 대부분 합작 파트너에 의존하고 있으며 한국에는 태양광발전 분야 전문 사이트가 운영되지 않고 있어 정보입수에 애로를 느끼고 있음. 특히 태양광발전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 정책과 지원단가 정보가 투자여부 결정의 관건인데 이에 대한 정보입수와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사례 (C기업): 한국 국내 온라인 게임시장에 대한 정보를 대부분 기존 거래선에 의존하고 있으며 한국 유관기관의 정보는 업데이트 늦어 애로를 느끼고 있음. 또한 한국 게임 업체 홈페이지 상당수가 지나치게 높은 보안수준의

방화벽을 설치하여 한국 파트너 발굴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A기업 사례 확인>

- 국내 태양광발전 보급 및 지원업무 담당하고 있는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 (www.knrec.or.kr) 확인 결과 외국어 버전 홈페이지는 운영되지 않고 있음
- 이에따라 태양광발전 보조금(발전차액금 지원제도) 고시내용을 외국투자가 입장에서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임
- 이같은 현상은 정부에서 공포하는 법규는 법제처에서 영문으로 작성하여 공포하지만 시행령, 고시는 영문으로 작성되지 않고 있기 때문임

< C기업 사례 확인>

- 국내 게임산업진흥원 (www.kogia.or.kr), 게임산업종합정보시스템(www.gitiss.org) 홈페이지는 외국어 버전은 영문 버전 홈페이지 운영되고 있음.
- 그러나 국내 게임산업 현황은 2006년 백서가 최신정보로 제공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가 대상 국내 게임산업 정보 서비스는 적극적으로 제공되지 않고 있음

② KOSDAQ 상장을 비롯한 다양한 대한 투자효익 홍보 강화 필요

- Key Findings: 중국 투자가는 이미 다양한 대한 투자전략을 구사하여 소정의 투자효익(Benefits) 추구하고 있으며 심지어 한국의 명목적인 생산비용이 중국과 단순 비교 높다는 점도 2-3년 이내 역전될 가능성까지 예상하고 있음. 또한 중국의 제조업 생산비용도 고정비용보다 가변비용 비중이 커지고 있고 인프라와 세무행정 효율 낙후 등에 따른 기회비용증대가 경영압박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반해 한국과 중국 임금수준을 단순비교하면 현재 한국이 높지만 연구개발 및 기능인력 임금은 이미 중국 수준과 큰 차이없고 부가세 환급을 비롯한 세무행정 신속한 처리와 외투기업에 대해 제공되는 조세감면 등 인센티브 활용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오히려 한국 경영여건이 중국보다 양호함. 이에 더해 한국은 전세계적으로 미국 NASDAQ 이외 유일한 벤처기업 IPO 시장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되어 있어 중국 벤처기업에게도 한국 KOSDAQ 상장은 꿈의 시장임.

중국도 심천에 소위 TAsDAQ 시장개설을 준비하고 있지만 개장시기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어 중국 벤처기업의 KOSDAQ 상장에 대한 관심은 지속될 전망이다.

- 사례 (B기업): 5,000만원 소액자본으로 제조업 투자 시작하여 2년 경과 후 자본금 7억원으로 증자하였고 다시 자본금 10억원으로 증자하여 KOSDAQ 상장 계획임.

한국을 수출진출기지로 활용하고 있는데 러시아를 비롯한 해외수출이 호조를 보이는 등 투자목적이 달성되고 있고 한미 FTA 시행에 큰 기대 걸고 있음. 중국의 연구개발 및 기술인력 연봉은 25-30만위안인데 한국 해당업무 인력 연봉도 4,000-5,000만원으로 중국과 큰 차이 없음.

- 사례 (C 기업): 한국시장에 이미 온라인게임을 수출하고 있는데 한국시장 잠재력이 커서 한국에 투자법인 설립하여 직배체제를 갖추고 공격적 마케팅을 전개, 시장점유율 높이고자 대한투자 검토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주중 싱가포르 대사관 경제발전청에서 C사를 타겟기업으로 지정하여 적극적으로 투자유치 활동에 나서고 있어 싱가포르와 한국에 대한 투자 효익비교에 고심하고 있음. 그러나 대한투자는 KOSDAQ 상장을 통한 안정적 자금조달이라는 경영 전략 측면에서 유리한 면이 있음. 실제 C사는 2007년 미국 NASDAQ 상장에 성공하였음.

<B, C기업 사례 확인>

-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는 중국기업의 한국 증시 특히 KOSDAQ 상장 관심이 높은 점을 인지하고 홈페이지(www.krx.co.kr) 중문버전 서비스하고 있음
- 또한 2008년 4월 11일 중국 산둥성 위해시(Weihai)에서 한국 증시 상장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중국기업 상장 유치활동 전개하고 있음

③ 대면 투자유치활동 지속적 강화 필요

- Key Findings: 중국 투자가는 방문, 설명회 등 대면 유치활동을 선호 하며 이는 인적 네트워크에 기반한 일차정보 수집 등을 통해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중국의 전통적 비즈니스 Mind-set 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해석됨. 대면 투자유치활동은 투자가별 맞춤형 투자서비스 요청이 따른다는 점에 비춰 충분한 유치인력 확보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지속적 교육을 통해 중국 현지인력의 전문화를 꾀하는 한편 특히 국내 각 전문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 투자정보 수집능력을 갖춘 중국동포(조선족) 대상 투자유치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운용하여 이들을 전문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필요함.

<중국 투자가의 투자유치활동별 선호도>

구 분	투자가 A	투자가 B	투자가 C	투자가 D	선호도
투자설명회	7	9	10	10	9.00
투자세미나	9	8	6	2	6.25
투자박람회	8	7	9	3	6.75
투자가이드		1		4	
뉴스레터				7	
정기간행물	6				
홈페이지		2	8	8	6.00
방문면담	10	10	7	6	8.25
전화		6		5	
이메일	5	3		9	5.67
구전소개		5		1	
광고		4			

주) 각 투자유치활동에 대한 투자가의 10점 척도 평가를 점수로 환산하여 각 투자유치활동별 점수 부여하였으며 점수 클수록 선호도 높다는 의미임. 개인별 편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응답자가 2개 이하 활동은 선호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④ 투자법인 설립 준비단계 계좌 개설절차 제도개선 검토 필요

- Key Findings: 투자법인 준비를 위해 파견된 직원 각종 경비사용을 위해 중국본사에서 한국으로 해당자금을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 중국 회계규정과 국내 절차가 상충되어

중국 투자기업이 홍콩 등 제 3국을 통해 송금을 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음.

즉 중국 회계규정은 회사자금을 한국에 파견된 직원 개인명의 계좌 송금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에 따라 원칙적으로 한국에 설립된 투자법인 명의계좌로 송금해야 하는 입장임. 그러나 현행 국내 관련규정은 외국인투자가 개인명의 계좌개설은 투자신고만으로 가능하지만 외국인투자가 법인명의 계좌는 투자신고 이후 사업자등록증과 법인인감 증명 및 이사회 의결 문서에 근거해서 개설토록 되어 있음. 따라서 법인 계좌개설에 상당기간 소요되어 불편 야기되고 있음

- 사례 (B기업): 투자 준비자금을 휴대해서 입국하여 개인명의 계좌 입금하여 사용하였음. 이후 법인설립 절차 마칠 때까지 필요 자금은 홍콩 통해 개인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음.

- 사례 (D기업): 투자 초기자금을 휴대해서 입국하여 개인명의 계좌 입금하여 사용하였음. 이후 법인설립 절차 마칠 때까지 필요 자금은 유럽 현지법인에서 개인명의 계좌로 송금하였음

<B, D 기업 사례확인>

- 금융실명거래제 및 인감제도로 인해 국내의 법인계좌 개설 및 입출금에 사업자 등록증과 인감증명 및 인감날인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며 은행차원에서 간소화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님
- 현재로서는 외국인투자자의 투자준비단계 소요자금을 법인계좌로 원활하게 송금받아 사용하는 방법은 대표사무소를 설립하여 대표사무소 계좌를 활용하는 것과 본사 명의 비거주자 계좌를 개설하여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 정도임

⑤ 투자이민 유치 활성화 제도개선 검토 필요

- Key Findings: 캐나다와 호주에 대한 중국 기업가의 투자이민이 많이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싱가포르정부가 중국 기업가 투자이민 유치 적극 나서고 있음.

최근들어 중국인의 캐나다와 호주 등 구미국가에 대한 투자이민 관심도가 문화와 관습의 충돌과 상관행의 현격한 차이 또한 저학년 자녀의 중국어 교육여건 미비 등을 이유로 주춤한 상태임. 따라서 중국 투자가 자격조건과 국내 국민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중국 우량 투자가 유치라는 관점에서 투자이민 유치 활성화에 대한 논의 필요함.

-사례 (B기업): 자녀교육 여건을 감안하여 싱가포르 투자이민을 고려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에서 계속 사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음.

-사례 (D기업): 아시아지역본부장으로서 중국,일본,한국 현지법인을 경영하고 있는 바 3개국 현지법인에서 발생하는 개인소득을 감안하면 중국의 개인소득세가 최고 40% 누진세율로 되어 있어 부담이 되고 있음. 개인소득세 절세 측면에서 한국 혹은 싱가포르 등으로 투자이민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B, D 기업 사례확인>

- 싱가포르정부는 경제개발청 (Economic Development Board)에서 외국인투자유치와 투자이민 유치업무를 동시에 전개하고 있으며 홈페이지(www.edb.gov.sg) 통해 투자이민 관련 정보 상세히 제공하고 있음
- 이에 반해 법무부는 내부적으로 투자이민 정책 활성화를 검토하고 있지만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www.immigration.go.kr) 내용에는 투자이민에 대한 구체적 정보는 제공되지 않고 있음

(2) Kotra 무역관과 지자체 대표처 유기적 협력 요망분야

- Key Findings: 지자체 중국 대표처 업무 가운데 투자유치 업무량이 전체 40-50% 정도로 가장 크고 내부평가시스템 역시 투자유치 업무 가중치가 가장 큼. 뿐만 아니라 중국 대표처 대부분 상하이에 집중되어 있고 지자체 투자유치 프로젝트 대부분 국토 해안선을 따라 분포된 개발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어 투자유치를 둘러싼 대표처의 과당경쟁 상황 우려 됨.

- 사례: 각 지자체에서 항만개발 투자유치에 나서고 있어 Port-sale 유치 설명회 개최하는 경우 동일한 유치대상 기업이 계속 반복적으로 초청되고 있음.
- 사례: 각 지자체에서 도서 레저개발에 나서고 있어 동일한 중국 투자가를 타겟기업으로 관리하게 되며 이에따라 지자체간 인센티브 경쟁과 이에 편승한 중국 투자가의 수익률 보장 요구 등 각 지자체 대표처 유치활동 및 유치상담 입지가 좁아지고 있음.

<상하이 소재 지자체 대표처>

지자체	설립년도	파견인원(명)
부산광역시	1997	1
충청남도	1999	1
경상남도	2003	2
군산시	2003	1
전라남도	2003	1
전라북도	2003	3
목포시	2003	1
경상북도	2007	1
제주도	2008(예정)	1

(3) 중국의 해외투자 절차 및 정부 지원제도

① 해외투자 절차

- Key Findings: 중국기업 해외투자는 중국 商務部長 2004년 16호 법령 <關於境外投資開辦企業核准事項的規定> 에 근거하여 상무부가 주무부서로 투자기업을 최종 관리하며 투자자금은 외환관리국, 투자내용은 상무부에서 각각 심사, 허가하는 체제임. 다만 특이한 절차는 상무부의 투자내용 심사를 위해 투자 해당국 주재 중국대사관을 통해 투자내용 사실확인 및 합작 파트너 신용조회를 거친다는 점임.

각 단계별 투자 허가심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경우 3개월 이내 허가절차 완료 됨.

한편 중국정부 해외투자장려정책(走出去政策) 기조는 단순히 과다한 외환보유고를 관리하기 위한 방편으로 기업 해외투자를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투자를 통한 노무수출과 플랜트수출을 병행 촉진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 됨.

<상하이시 소재 중국기업 해외투자 절차>

- 비국유기업: 해외투자자금 외화자금원 심사신청(중국기업 투자금액 1000만달러 이하 상하이시 외환관리국 심사/1,000만달러 초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심사/5,000만달러 초과 국무원 심사) → 해외투자사업 허가신청 (상하이시 대외경제무역위원회 심사) → 해외투자사업 허가등록 (상무부) → 해외투자사업 허가서 발급 (상하이시 대외경제무역위원회) → 해외투자 외화자금 등록증 발급 (상하이시 외환관리국) → 투자자금 해외송금 (은행) → 해외투자기업 설립등록 (해당국 주재 중국 대사관)
- 국유기업: 해외투자사업 심사신청(상하이시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 → 해외투자자금 외화자금원 심사신청(중국기업 투자금액 1000만달러 이하 상하이시 외환관리국 심사/1,000만달러 초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심사/5,000만달러 초과 국무원 심사) → 해외투자사업 허가신청(상하이시 대외경제무역위원회 심사) → 해외투자사업 허가등록(상무부) → 해외투자사업허가서 발급(상하이시 대외경제무역위원회) → 해외투자 외화자금 등록증 발급 (상하이시 외환관리국) → 투자자금 해외송금(은행) → 해외투자기업 설립등록 (해당국 주재 중국대사관)

② 정부지원 제도

- Key Findings: 중국정부 공식적인 입장은 중국기업 해외투자 장려 지원제도는 투자허가 신청 서류 간소화, 투자허가 인터넷 신청 등 행정편의 제공과 중국수출신용보험 공사를 통한 해외투자보험 제공, 중소형 해외투자자에 대해 은행을 통한 외화대출 알선이 주를 이루는 등 간접적인 지원책 일변도라고 밝힘.

그러나 중국기업은 실질적 지원책으로 투자금액 1,000만달러 이하 중소형 투자건에 대해 중국정부는 은행으로부터 외화대출을 투자금액의 70% 정도까지 제공받도록 알선하는 한편 별도 심사를 통해 해당 대출금 이자의 50% 정도를 직접 보조하여 준다고 밝힘.

또한 중국기업이 미국 NASDAQ 상장에 성공하는 경우 최장 3년 중국 본사의 기업소득세를 감면받는다고 밝힘.

(4) 중국의 국부펀드 운용 현황 및 대한투자 가능성

- ① 명칭: 中國投資有限責任公司(China Investment Corporation)
- ② 본사: 중국 베이징 New Poly Plaza(新保利大廈)
- ③ 설립: 2007년 9월 29일 (홈페이지 제작중임)
- ④ 조직: 중국 재정부 10년 만기 특별국채 발행자금으로 설립된 국유기업
- ⑤ 기금규모: 2,000억달러
- ⑥ 의사결정 체제: 중요 의사결정은 3인의 상임이사(총경리 포함)와 관련 정부부서 공무원으로 구성된 비상임이사로 이루어진 이사회에서 결정함. 일상적인 회사운영과 대부분 투자 의사결정은 총경리와 내부 각 부서 책임자로 이루어진 집행위원회에서 이루어짐.
- ⑦ 투자전략: 국채금리가 연리 4-5% 수준이기 때문에 국채 원금과 이자 상환을 위해 연 5% 이상 투자수익률 안정적 확보에 주력하여 선진국 공개시장 투자에 중점을 둘 것임. 이점은 부동산 투자 같은 고수익 고위험 투자도 마다하지 않는 싱가포르 테마섹과 차별되는 전략임.
- ⑧ 대한 투자가능성: 한국 주식시장 정보수집 및 관찰하는 단계임. 당분간 관망세 유지할 것으로 보임.

4. 결론 및 제안

(1) 투자유치업무 개선 분야

- ① 투자가 맞춤형 신속정확한 한국 국내시장 정보제공 강화 (예: IK PM)
- ② 다양한 대한 투자효익 개발 및 홍보 강화 (예: KOSDAQ 상장)
- ③ 대면 투자유치활동 지속적 강화 (예: 중국동포 전문인력 활용)
- ④ 투자법인 설립 준비단계 계좌개설 제도개선 검토
- ⑤ 투자이민 유치활성화 제도개선 검토

(2) 지자체 대표처 투자유치업무 개선 분야

- ① 질서있는 투자유치를 통한 골드 러쉬형 과열양상 방지 방안 검토 .끝.